



손흥민

손흥민 vs 황희찬 '코리안 더비'

11일 토트넘·울버햄프턴 공격 선봉에...올 시즌 EPL 첫 맞대결

최근 제대로 상승세를 탄 한국 국가대표 공격수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 이번 주말 펼쳐진다.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11일 오후 9시 30분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2라운드 원정 경기를 통해 황희찬의 소속 팀 울버햄프턴과 격돌한다.

2023-2024시즌 두 팀이 맞붙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최근 잉글랜드 무대에서 실력을 한껏 뽐내는 우리나라 대표 공격수들 간 맞대결이기도 하다.

손흥민은 최근 정규리그 6경기에서 5골을 터뜨리는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멀티 골을 폭발한 아스널과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까지 5경기에서만 5골을 넣었다.

이 기간 4승 1무로 고공행진 한 토트넘은 지난 6일 첼시와 홈 경기에서는 2명이 퇴장당하는 악재 속에 1-4로 졌다.

이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전반 13분 브레넌 존슨이 보낸 낮은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해 한 차례 골망을 흔들었다.

아쉽게도 비디오판독(VAR) 끝에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 득점은 무효가 됐지만, 손흥민의 골 감각이 한껏 예리해졌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시즌 8골을 넣은 손흥민은 엘리엇 홀란(맨체

스터 시티·11골)에 이어 EPL 득점 순위에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다.

첼시전 대패로 상승세가 꺾인 토트넘(8승 2무 1패·승점 26)으로서는 맨체스터 시티(승점 27), 리버풀, 아스널(이상 승점 24) 등과 선두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울버햄프턴전을 통해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

올 시즌 상승세 주역으로 꼽히는 핵심 미드필더, 센터백 제임스 매디슨, 미키 판더펜이 모두 첼시전에서 불의의 부상을 당한 터라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잡는 게 더욱 시급하다.

한국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에 맞서는 황희찬 역시 EPL 입성 이후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황희찬은 11경기에서 6골을 터뜨려 알렉산데르 이사크(뉴캐슬), 브라이언 음베우모(브렌트퍼드)와 나란히 EPL 득점 순위에서 6위에 올라 있다.

지난 5일에 열린 직전 셰필드와 원정 경기에서 울버햄프턴이 1-2로 패하긴 했으나, 황희찬은 어시스트로 공격포인트를 추가하며 활약했다.

최근 공식전 6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만들어낸 황희찬은 올 시즌 명실상부 울버햄프턴의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활약 중이다.

공식전을 통틀어 7골을 기록 중인데, 황희찬을 빼면 사샤 칼라이지치(3골)가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다.

최근 정규리그 5경기에서 3골 2도움을 몰아친 황희찬을 앞세운 울버햄프턴(3승 3무 5패·승점 12)은 이 기간 2승 2무 1패를 챙기며 시즌 초반의 부진

을 털어내는 모양새다.

지난달 10일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돼 훈련한 황희찬은 취재진에 손흥민과 나란히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당시 황희찬은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흥민이 형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흥민이 형도 최선을 다해 가장 많은 골을 넣으려 하겠지만, 나도 내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둘은 11월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기간을 앞두고 다시 위트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싱가포르와의 맞대결로 2차 예선을 시작하며, 21일 오후 9시 중국 선전에서 중국과 원정 2차전을 펼친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손흥민과 황희찬은 클린스만호의 공격 선봉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최근 맹활약하는 클린스만호 소속 유럽파 선수들이 둘만 있는 건 아니다.

최근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2 경기에서 어시스트, 득점을 차례로 기록한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오는 12일 오전 1시 스타드 랭스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조규성(미트웰란) 역시 지난 6일 흐비도브레와 원정 경기에서 리그 6호 골을 넣은 기세를 13일 자정에 킥오프하는 노르셀란전에서 이어가려 한다. /연합뉴스



황희찬

전력 재정비 광주FC, 대구 상대 '막판 스피트'

휴식기 마치고 11일 원정경기 아시아챔스리그 진출 위해 남은 3경기 총력전 예고

전력 재정비를 끝낸 광주FC가 아시아무대를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광주는 11일 오후 4시 30분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와 K리그 2023 36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광주는 지난 35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상대 신예들에 막혀 0-2 패를 기록, 4연승 도전에 실패했다. 베스트 전력으로 경기에 나선 광주는 점유율에서도 인천을 압도하고도 패배를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경기가 끝난 뒤 "준비가 부족했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냈던 이정호 감독은 인천전 패배를 쓴 보약 삼아 팀을 재정비했다.

2주의 휴식기 동안 조직력을 가다듬은 광주는 남은 3경기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창단 후 최초의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만큼 막판 스피트의 시작점인 대구전이 중요하다.

대구전 이후 광주는 전북현대와 원정경기를 치른 뒤 안방에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만만치 않은 팀들과의 대결, 대구도 광주에는 '난장'이다. 이정호 감독은 파이널라운드 미디어 데일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대구'의 이름을 언급했다.

원정에서 치러지는 경기이자 스타일이 다른 팀과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대구를 꼽았다.

연승 중단 뒤 치르는 첫 경기에도 한 만큼 대구전 승리가 필요하다.

전력에서 이탈했던 선수들의 복귀가 이뤄지면



광주FC 이승우가 지난 7라운드 대구전에서 골을 넣은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서 팀은 더 단단해졌다. 앞서 김승우, 이강현, 이준이 빈 자리를 잘 메워주는 등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정호 감독의 '행복한 고만'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는 최상의 전력으로 올 시즌 대구와의 만남을 우위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올 시즌 대구와 1승 1무 1패로 팽팽히 맞섰다. 역대전적에서는 9승 6무 8패로 광주가 앞선다.

특히 이번 경기가 열린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기분 좋은 기억이 많다. 광주는 이곳에서 5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대구 원정에서도 4-3 승리를 거두면서 강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무려 10골을 주고받은 대결전 끝에 6-4 승리를 거두

기도 했다. 대구는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최근 흐름은 좋지 않지만 이근호, 고재현, 김진혁, 황재원, 홍철 등 수승급 국내 선수들이 버티고 있고 에드가, 벨톨라, 바셀루스 등 외국인 선수들도 막강하다.

또 좋은 수비로 상대를 봉쇄한 뒤 역습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말캉 축구'가 위협적이다.

광주는 앞선 인천전 패배를 통해 대구의 역습 축구에 대한 예방 주사를 맞았다. 인천전 패배로 전력을 재정비한 광주가 대구를 꺾고, 아시아 무대를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송원대 주짓수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최근 광산구 수원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회 광주시 광산구청장배 주짓수 대회 참가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송원대 제공>

10월 개원 송원대 주짓수 아카데미 광산구청장배 메달 대거 획득 '쾌거'

금 4·은 4·동 4개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주짓수팀(부장 홍성봉 교수, 감독 박경민)이 최근 광산구 수원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회 광주시 광산구청장배 주짓수 대회에서 대거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송원대는 이번 대회에 주짓수 아카데미 소속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참여해 금메달 4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지역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 등 4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송원대는 지난 3월 전국 대학 최초로 주짓수 팀을 창단해 현재 대한체육회에 정식 등록된 유일한 대학 팀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달에는 광주시 관내 취약계층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 60여 명을 대상

으로 아카데미를 개원했다.

송원대 주짓수 아카데미는 지난달 개원해 짧은 훈련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 2회 이상 송원대 선수단과 합동 훈련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2024년도 수시 합격생들 역시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앞으로 송원대 주짓수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원대학교 주짓수팀 부장교수인 홍성봉 교수는 직접 경기장을 방문하여 송원대학교 소속 선수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자리를 함께 했다.

홍성봉 교수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운동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년들과 함께 건전한 여가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더 마블스, 톱 투 미
- 2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3관 30일
- 4관 더 마블스
- 5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톱 투 미
- 6관 더 마블스
- 9관 소년들
- 7관 씨네마필름 뉴 노멀, 소년들
- 8관 씨네마필름 30일, 다이브: 100피트 추락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세종솔로이스츠 & 이안 보스트리치 '일루미나시옹'
 일시 : 2023-11-12(일)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